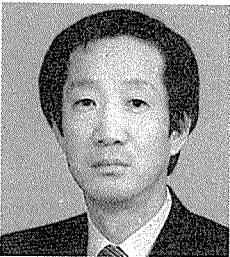


國際通商 環境變化와 '90年度 通商政策方向



李 宗 求
商工部 通商政策課長

아시아 지역은 우리나라의 구조조정 대상산업의 해외생산기지로 추진하고 중동지역과는 자원협력을 강화하면서 이란, 이락의 전후복구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방향으로 중남미 및 아프리카 지역은 상호 보완적인 경제구조를 통한 교역확대 계기로 삼아 나아갈 계획이다.

1. 한국경제의 위상

우리 경제는 '60년대 초를 기점으로 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세계경제사에 유례가 없는 엄청난 발전을 해왔다. 그간 연평균 8%가 넘는 경제성장을 이룩하였고 수출이 연평균 30% 이상의 증가를 기록하였다.

'80년대의 우리경제는 착실한 발전을 해왔으며, 특히 '86년부터는 12%이상의 고도성장을 '88년까지 3년간 계속함에 따라 우리 국민 모두가 우려했던 외채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으로부터는 승천하는 용으로 인식되었으며 개발도상국 및 공산권 국가로부터는 그 발전전략을 배우겠다는 칭송까지 받게 되었다.

한편 1인당 국민소득도 5,000달러를 내다보는 중진국으로 변하였고 교역규모도 1,200억 달러가 넘어 세계 제12위로서 EC를 하나의 블록으로 볼 경우 EC, 미국, 일본, 캐나다, 소련에 이어 세계 제6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국제분업속에서 자본집약적인 자동차, 철강 등의 분야는 선진국과 산업내분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산업의 생산능력을 볼때 자동차는 세계 제10위, 철강은 세계 6위, 반도체 6위, 조선 2위, 컬러TV 2위 등 몇몇 산업의 경우 생산능력이 세계 10위권 이내로 진입하였다.

산업발전단계면에서는 우리나라 산업이 단순한 수출친흥 차원을 넘어서 생산의 국제화, 즉 다국적기업의 투자전략을 도입하여 석유, 신발 등은 동남아 및 중남미 등 개도국으로, 전자, 자동차 등은 선진국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장속에서 '87년 민주화 물결과 더불어 노동생산성을 능가한 임금인상, 그



'92년 단일시장 완성이전에 우리기업이 EC내에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리고 지속적인 원화절상 등으로 우리 상품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어 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하였다.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수출은 '89년도의 당초예상 700억 불에 훨씬 못미친 623억 불을 기록하였고 물량기준으로는 5.9% 감소하는 부진한 실적을 보였고 국제수지 흑자폭도 대폭 축소되었다.

수출에 높은 의존을 하고있는 우리 경제에 수출부진이 마이너스효과를 미쳐 '89년 성장도 당초 예상 8%에 훨씬 못미치는 6.5% 성장을 기록하여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가 적지않다.

이에 따라 한국이 축복의 삼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느니 한국의 고도성장은 이제 끝이 났다느니 하는 등 한국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2. 우리를 둘러싼 국제 통상환경

'80년대 후반기의 세계교역량은 '80년대 전반기의 부진으로부터 벗어나 수출입 물량기준으로 연평균 7%의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세계무역환경은 가트체제의 동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진행, EC통합의 진전, 미국

의 신중합무역법안의 발효, 미국·카나다간 자유무역 협정 발효, 아시아 태평양지역 경제권의 부상, 동구권의 경제개혁의 진전에 따른 동서간의 경제협력강화 움직임등 큰 변화를 겪고 있다. 따라서 '90년대로 접어든 현시점에서 국제무역환경은 경기적 변화라기 보다는 전후 최대의 구조적 변화를 겪고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수있다.

1)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의 종결

'86년 9월 우루과이 폰타 델에스테에서 채택된 가트 각료선언은 협상시한을 금년말로 정해 놓고 있어 금년은 '90년대와 2000년대초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새로운 세계무역질서수립을 위한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즉 관세와 비관세장벽의 대폭 완화, 섬유와 농산물교역의 가트복귀를 통한 자유화, 정보보호조금의 축소와 반덤핑부과제도 개선에 의한 공정경쟁강화, 서비스 및 지적소유권교역에 관한 새로운 규범정립으로 현재 강화되고 있는 쌍무차원의 보호무역주의를 가트규범에 의한 다자, 무차별, 자유무역주의로의 전환이 기대되고 있다. 이의 협상 결과를 우리 경제가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태세 정비가 시급하다 하겠다.

2) EC 통합 등 지역주의 강화

경제의 블록화, 즉 지역주의 강화추세가 세계무역질서상 점차 일반화 되고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92년말까지 완성을 서두르고 있는 EC 통합이라 할 수 있는데 인구 3억 2,000만명, GNP규모 3조 4,000억 달러, 세계교역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EC가 역내의 무역장벽의 완전철폐, 상품, 서비스 및 자본의 자유이동, 노동력의 자유이동 등을 통해 미국에 버금가는 규모가 될 경우 경제력 증가에 따른 수입수요증대로 우리의 수출증대가 예상되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EC경제권의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효과로 EC내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우리제품의 대EC 수출에 경쟁이 더욱 심화가 예상되며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신발, 섬유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제품에 대해 역내 산업보호를 위해 수입규제를 강화할 가능성도 크다 하겠다.

이밖에 지역주의의 또다른 대표적인 예는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이 있다. 미국은 이스라엘,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이미 시행중이며 멕시코와도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가트에 통보된 자유무역협정은 EFTA, ASEAN, LAFTA 등 50여개에 달하고 있으며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에는 아·태지역간의 경제협력 움직임이 고조되고 있다.

이들지역 국가들은 환태평양지역국가의 경제력이 급증하고 있고 EC통합추진에 영향을 받아 경제협력필요성을 인식하고 '89. 11월 호주 캔버라에서 제 1차 아·태지역협체협력각료회의를 개최하여 협력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금년 6월에 싱가포르에서 2차회의를 내년에는 3차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3) 소련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과 개방화

최근 소련을 포함한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과 개방화가 세계인의 높은 관심을 끌고있다. 지난 12월 개최된 미·소 몰타 정상회담은 세

계가 과거의 동서 냉전시대에서 화해와 협력의 시대의 도래를 확인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세계경제가 나아갈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개최된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일당독재의 포기를 선언하는 등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사회주의 특유의 경제구조의 경직성, 비효율성 등으로 경제가 극도로 침체됨에 따라 이들 국가들은 높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있어 미국, 일본 등에 편중된 수출시장구조를 지닌 우리로서는 시장다변화 측면에서 이들 국가와의 경제협력증대를 적극 추진하여야 하겠다.

4) 미국 등 선진국과의 통상마찰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EC 등 선진국과의 교역이 전체수출의 7 할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수출의 지속적인 증대를 위해서는 이들 국가와의 통상마찰을 해소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교역규모가 12대 교역국으로 교역규모가 커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선진국과의 무역마찰도 심화되고 있다.

특히 '89년에는 미국과의 수퍼301조 협상으로 한미간 통상관계가 긴장된 한 해였으며 농산물, 국산화정책, 외국인 투자정책 등이 타결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국(PFC) 지정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밖에도 지적소유권 분야는 협상결과 우선 감시대상국(PWL)에서 제외되었고 한·미어업, 한·미철강 VRA, 가트 BOP협약 및 가트 쇠고기 패널보고서 채택 등으로 주요통상현안이 해결되었다.

금년에는 아직 미결사항인 통신협상, 지적소유권, 쇠고기, 환율문제 등이 양국간 논의될 예정으로 있다.

또한 EC는 아국에 대해 보다 많은 시장개방과 지적소유권보호의 대미 동등대우 등을 요구

하고 있고 일본은 우리나라의 수입선다변화 및 수입선 전환 품목의 운용을 우리나라 수입제도의 개선과 지적소유권에 대해 미국과의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으로부터 수입규제로 우리나라 수출이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는데 '89년 12월 말 현재 미국, 일본, EC, 캐나다 등 21개 선진국으로부터 93건 200여개 품목이 규제를 받고 있는데 규제하의 수출비중은 총수출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국별로 규제하의 수출비중을 살펴보면 미국은 20%, 캐나다 23%, 일본 24%, EC 22%, 호주 10% 등이다.

최근의 동향을 살펴보면 EC는 VCR 등 5개 품목을 반덤핑제소로, 섬유류 등 2개 품목을 쌍무쿼타로, 신발류를 긴급 수입제한조치로 규제중이며 미국은 컬러TV 등 6개 품목을 반덤핑으로, 보통강 등 3개 품목을 쌍무쿼타로 이밖에 특허권 침해로 열쇠 반제품을 조사중이다.

캐나다는 스텐레스 강관 등 16개 품목에 반덤핑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섬유류는 쌍무쿼타를 적용중이다.

3. '90년도 통상정책방향

1) 적극적인 통상외교활동의 전개

정부는 선진국과의 통상마찰의 완화와 수출시장의 확보, 국제사회에서의 아국입장의 제고, 우루과이라운드 등 다자회의에서 아국입장의 반영 등을 위해 적극적인 통상외교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통상장관회담은 지난해 22회에서 27회로 대폭 늘리고 무역실무회담 28회, 민간경협위개최 37회, 민간무역사절단 파견 23회로 정부간 또는 민간부문간의 통상교섭채널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

또한 선진국과의 통상마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덤핑, 위조상품의 수출행위를 억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2) 급변하는 국제무역환경에 능동적 대처 가. 새로운 국제무역질서형성을 위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적극 참여

우리 경제가 국제화되어 나가고 있는 추세와 병행하여 새로운 국제무역질서형성과 세계경제활성화를 위한 제반활동에 대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보호주의 확산을 저지하고 대외교역여건을 개선해 나아갈 계획이다.

또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금년에 종료될 것에 대비하여 국내수용태세를 적극 정비하여 개방에 따른 국내기업의 적응을 강화해 나가면서 시장개방의 충격을 완하시키기 위해 산업피해구제제도 및 운영기구를 보완 강화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세계 제12위의 교역국으로서 안정적인 세계무역질서 보장을 위한 우루과이라운드의 성공적 타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협상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선개도국간의 대립된 입장을 조정하는 교량역할을 수행해 나아갈 계획이다.

나. 세계 주요교역국으로서의 국제적 책임과 역할요구에 신축적으로 대응

아국의 경제력이 세계 제15위이고 무역규모도 12위 교역대국이고 세계총교역량대비 1.9%로서 이에 상응한 국제사회에서의 책임분담과 역할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즉 선진국은 아국에 대해 농산물, 지적소유권, 서비스 등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고 개도국은 자국의 경제개발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어 수입자유화와 관세인하 등을 통해 시장개방을 점진적으로 하면서 개도국의 요구에 대해서는 대외협력기금을 매년 확충하여 대개도국 경제협력을 증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다. 지역주의 강화추세에 효율적 대처

GNP의 70%를 대외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아국으로서의 확산되고 있는 지역주의가 배타적인 경제블록이 아닌 개방적인 자유무역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가트나 우루과아 라운드 협상을 통해 촉구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이들 지역주의 강화국가에 대한 지속적인 교역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아갈 계획이다.

라. 아·태지역 협력강화에 적극 참여

'89년 11월 개최된 아·태지역 경제협력 각료 회의는 아세안의 소극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각료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토록 합의함에 따라 아·태지역 협력체가 하나의 기구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동 각료회의 참가를 통해 미국, 일본 등 주요 참가국 및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기회로 활용해 나아갈 계획이다.

아울러 태평양경제협력회의(PBEC)와 태평양 경제협력회의(PECC) 등 지역경제협력기구와의 유대 강화도 도모해 나아갈 계획이다.

3) 통상권별 특성에 맞는 시장 다변화시책의 추진

가. 미국과의 통상마찰의 완화와 무역의 확대균형 추구

우리나라의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통상마찰해소가 주요한 통상정책 과제 중의 하나이다. 미국과의 통상마찰 완화를 위한 그간의 시장개방 및 대미수입 확대노력에 따라 '89년말 현재 대미수출은 205억불로 수출은 '88년말대비 4.3% 감소한 반면 수입은 160억불로 26% 신장을 보였고 아국의 대미무역수지흑자도 '88년 86억불에서 '89년에는 45억불로 대폭 축소되어 양국간의 교역이 확대균형으로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대미흑자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미수출의 감소보다는 대미수입의 증대를 통해 확대균형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현재 양국간 통상현안으로 남아있는 쇠고기 수입개방, 통신시장개방, 환율문제에 대해 협

상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여 이러한 문제들이 양국간의 통상마찰로 비화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미국의 대한수입규제 현황, 통상관련 입법동향, 각종 통상정보수집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아가면서 수출물량의 자율적인 규제와 수출동향의 점검 등으로 민간기업의 수입규제 대처능력을 제고시켜 나아갈 계획이다.

또한 대미통상마찰의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물량위주의 소나기식 덤핑 수출인점을 감안하여 종래의 물량위주의 방식을 지양하고 고부가가치 중심의 내실있는 수출구조로 전환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나. 일본과의 무역역조개선과 수출증대 추진
'86년도에 54억불에 달했던 대일무역 적자가 '87년 52억불 '88년에는 39억불로 점차 개선되었으나 '89년에는 40억불로 다소 늘어나 역조 개선이 쉽지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일무역역조개선을 위해 우리상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투자, 신기술도입, 생산성 향상 등 장·단기적 투자를 통해 한일간의 기술 격차를 줄이면서 한편으로는 대일수출촉진단과 견, 구매사절단 유치, 주요수출가능품목의 발굴 등 시장개척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아갈 계획이다.

또한 양국간에 놓여있는 통상마찰 요인을 통상장관회담, 무역실무위원회 등 공식채널을 통해 해결해 나아감과 동시에 바람직한 한일관계 정립에 주력해 나아갈 계획이다.

다. '92년 EC통합에 효율적으로 대처
EC통합의 완성이 '92년말로 되어있어 금년중에는 EC통합을 위한 노력이 가일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92년 단일시장 완성이전에 우리기업이 EC내에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88년 8월 상공부내에 민관공동의 대EC 통상협력강화협회의가 설치되어 활발하게 활동중이다. 주요 활동내용은 연구소별로 EC 통합관련 각종 법령(directive)을 분담하여 그 결과를 세

미나 및 정보지를 통해 전파토록 하고 있다.

또한 EC의 공업표준규격, 경쟁국기업의 진출전략, 투자환경 등을 집중 분석하여 우리 기업에게 홍보를 강화하고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품목을 선정하여 직·간접투자 및 M&A를 통해 현지생산거점을 확보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라. 시장다변화를 위한 개도국 시장 진출확대
개도국 시장은 미국, 일본 등에 편중된 우리나라와의 수출시장을 다변화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전체 수출액 중 22%가 개도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앞으로 아국의 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아시아 지역은 우리나라의 구조조정대상산업의 해외생산기지로 추진하고, 중동지역과는 자원협력을 강화하면서 이란, 이락의 전후복구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방향으로, 중남미 및 아프리카 지역은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통한 교역확대 계기로 삼아 나아갈 계획이다.

대개도국 시장개척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개도국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전시회 및 박람회에 적극 참여하고 민간 경제사절단의 파견을 늘리면서 통상장관회담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아국이 개도국과의 경제협력추진을 위해 '87년에 조성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89년 1,543억원에서 '90년에는 2,029억원으로 늘

어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개도국과의 경제협력기반구축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마. 북방지역의 개방화를 경제진출의 계기로 적극 활용

북방권과의 교역은 '88년 37억불을 기록하였고, '89년 12월말 현재 41억불로서 13% 신장하는 등 북방지역이 우리의 주요 교역 파트너로 등장하였다.

북방지역국가의 외교관계수립과 무역사무소의 증설 등으로 교역환경은 더욱 호조되어 가고 있어 이들 지역과의 교역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북방권국가와의 무역사무소는 헝가리, 유고, 소련, 폴란드, 불가리아 등과 설치되었고 금년 상반기에 체코와 개설될 예정이며, 금년내에 중국, 동독, 베트남과도 개설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간접교역에서 직교역 중심으로의 기반을 확대키 위해 기업의 지사설립을 확대하면서 이들지역에서 개최하는 각종 전시회의 참가, 아국상품 전시회의 개최, 민간경협위의 구성확대, 경제협력 및 투자사절단의 파견 확대 등을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북방지역국가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별 시장정보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할 계획이다.